

“건설산업 활성화 도 차원 공공투자 확충 필요”

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개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 차원의 공공 건설투자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내 건설업계의 공공공사 의존도가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분석에서 기인한 것이다.

도는 20일 신관 소회의실에서 ‘2018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1월 도가 연구원에 의뢰한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 연구위원은 △공공 건설투자의 지속적 확

충 △지역 내 수주 확대 △지역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 유도 등을 지역 건설업 대응 방향으로 제시했다. 박재명 도 건설교통국장은 “위원회에서 의논된 건설산업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건설 활성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강원도 공사대금 '상품권' 지급 중단한다

강원도가 도 발주공사의 공사대금 중 일정부분을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상품권 유통활성화'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 상품권 유통과 관련해 건설업계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건의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강원도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도내 건설사들은 일일비율(3~8%)의 공사대금을 도가 발행하는 강원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발주처인 강원도에서도 일부를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요즘 업체들이 거부하고 있어 강원도에서도 굳이 상품권을 매입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지난 2016년 매년 약 4조원 수준의 지역지급 역의유출이 지역경제 침체

도, 상품권 유통계획 잠정 철회 건설업계 "사용 효율성 떨어져" 기업 경영결정권 침해 목소리도 유동성 위기에 현금화 가능 등 제도적 보완책 뒷받침해야

의 주원인으로 판단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늘려 강원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상품권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상품권은 3종의 종이 상품권으로 도내 전 지역에 상품권 취급에 동의한 사용점을 중심으로 도내에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을 통과한 업소에 한해 유통되고 있다.

도 건설사들이 강원상품권 수령을 거부

강원도 건설교통국 강원상품권 유통실적 및 구매 계획(2017년~2018년)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대상 사업수	사업금액	상품권 유통목표	상품권 유통실적			대상 사업수	사업금액	상품권 유통목표
공사	24	76544	5277	계	도내	외지	20	85044	6167

자료: 강원도 내부자료

하는 이유는 상품권 사용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강원상품권을 구매해도 근로기준법상 상품권으로 노임을 지급할 수 없다. 하도급법상 현금 외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도 지급할 수 없으며, 건설장비 임대 계약 시 일부 상품권 지급 조건이 포함될 경우 장비투입 기피 우려로 공사비용으로 상품권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공사가 주를 이루는 전문건설업과는 달리 발주금액만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종합건설업은 일부라도 상품권으로 대금을 수령하면 사용처가 적어 골머리를 썩고 있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200억원 공사에 16억을 상품권으로 받으면 처리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원도의 강원상품권 활성화 계획도 크게 수정될 전망이다. 앞서 강원도 건

설교통국은 강원상품권 유통목표를 지난해 56억7000만원에서 올해 61억7000만원으로 16.88%(8억9000만원) 증액했다. 강원도 지역도시과, 건축과, 토지과, 도로철도과, 교통과, 치수과, 철도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 등 건설교통국 소관부서가 진행하는 발주사업 49개, 850억원 중 7.25%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계약금액의 3~8%는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규모로 이를 모두 상품권으로 구입하면 기업 경영결정권의 심각한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도내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가 목적이려면 상품권 지급을 외지 소재업체만 적용하거나, 구매 업체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 시 상품권 재매입 혹은 현금화 가능조건을 제시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오인철 신임 강원경제단체연합회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린 이사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인철 건협 강원도회장, 강원경제단체연합회 2대회장 추대

강원경제단체연합회(이하 강경련) 제2대 회장에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이 추대됐다.

강경련은 지난 18일 베니키아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2년 임기가 만료된 최도진 초대회장의 후

임으로 오인철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임 부회장에는 천세복 도관광협회장과 노정협 중소기업융합강원연합회장이 선임됐다. 사무국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계속 맡는다.

임성엽기자